

여야, 박영선 청문회 자료 제출 공방



27일 열린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시작부터 여야 간 고성인 오가는 공방이 빚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앞서 한국당은 박 후보자를 상대로 주민등록법 위반, 세금 지급 납부, 재산 축소 신고, 증여세법 위반, 논문 표절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후보자 측이 제출하지 않자 성명을 내고 청문회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장 내 노트북에 박영선, 자료제출 거부'라고 국민들은 박영선 거부'라고 적힌 문서를 붙인 상태로 청문회에 입회했다.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자료제출이 부실해 청문회 연기를 요청했지만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진행은 되긴 하지만, 이제까지 청문회 중에서 이렇게 자료 없이 감쪽같이 청문회를 한 적은 없었다"며 "청문회에 입하는 후보자의 자세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료 없이 청문회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떳떳하게 자료를 제출할

한국당 "자료없는 청문회 의미 없어"...정회 촉구
민주당 "유방암 수술기록 등은 왜 내리는 것인가"
박영선 "자료 열람토록 하겠다" 답변에 질의 돌입

상태에서 청문회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우 한국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정회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갑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다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후보자는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박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를 우습게 아는 오만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권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들이 청문회와 무관한 개인의 사적 영역을 건드리는 내용도 많이 있다며 반박했다.

이후 의원은 우선 한국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붙인 문구부터 떼어달라고 항의했다.

이 의원은 "후보자가 유방암 수술을 받은 기록은 왜 내리는 건가. 이게 왜 궁금한 건가"라며 "실사 수

술을 했든 안 했든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서 제출 안 했다고 청문회를 요구하고 청문회를 거부하냐"라고 반문했다.

박법계 의원은 "이것은 후보자를 검증, 청문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민주당의 검찰·재벌개혁의 상징이었던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말살하기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폭정을 높였다.

여야 공방은 미제출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박 후보자의 발언으로 일단락 됐다.

박 후보자는 "의원들이 총 2252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중 145건을 제출 안했다"며 "이 중에는 시간이 너무 경과해서 없는 자료가 대부분이다. 이외의 제가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은 오늘 다 찾아왔다. 원하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與, '취임 한 달' 황교안에 "제1야당 대표 역할 의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취임 한 달을 맞아 '제1야당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협조 등도 거듭 요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혜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가 취임한 지 한 달이 됐다"며 "축하하게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5·18 망언 의원에 대한 후속조치가 안 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역사왜곡 발언도 전혀 제어되지 않고 있다"며 "해묵은 색깔론을 보궐선거에서 열심히 사용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진정 제1야당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 대해 황 대표가 취임 한 달을 맞아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당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한 것을 두고는 "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을 평가했을 때는 판결 비평이 삼관본



이어 "한국당은 지금은 과거 잘못에 대해서 반성해야 할 때이지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지극히 정상적, 상식적 노력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할 때가 아니다"며 "법집행이 경찰관에게 대드는 것과 같은 격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차관 재수사 권고와 관련해 "공수처를 밀어붙이기 위한 선동이라고 얘기한다"며 "국민 80%는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한다. 사회 개혁 과정을 한국당이 외면할수록 점점 국민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

박주민 "보선에 해묵은 색깔론...취임축하 어려운 상황"
윤호중 "정치공세로 지역경제 회복 골든타임 낭비 중"

립을 무너뜨릴 것처럼 호들갑 떨었던 정당과 이 논쟁 낸 정당이 과연 같은 당인가 싶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한 것에는 "정치보복 프레임"을 말하는 것은 불 타기"라며 "불 타기를 멈추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성실히 임하기를 바란다. 한국당은 김 전 차관 사건 등을 계기로 높여져 가고 있는 공수처 설치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박광은 의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발생한 공공기관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문재인 정부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한 노력의 과정"이라며 "한국당이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블랙리스트는 터무니없는 프레임을 만든 것은 탄핵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다"고 했다.

남인순 의원의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 대상에 포함된 과상도 한국당 의원은 정치보복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며 "과 의원은 불 타기를 제발 그만두고 당당하게 수사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통영·고성 보궐선거와 관련해 "황 대표가 아닌 이념논쟁 정치공세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낭비하고 있다"며 "한국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보선을 만들어놓고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치 투쟁을 하는 황 대표가 딱하기 조차 하"고 했다.

그는 청원 성산 보궐선거와 관련해 "청원 성산에서 민주개혁 후보가 된 여영국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당은 최대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조동호, 청와대 지명 철회 관련 질의에 "듣지 못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조 후보자를 대체할 또 다른 장관 후보자가 물색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는 얘기에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지명 철회를 지명철회

할 지 모른다는 얘기가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새 장관 후보자가 물색되고 있다는 얘기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이거는 코드에 맞는 또 다른 장관 후보자를 위해 조 후보자가 희생자가 된다는 생각이 든다. 당혹스럽다"고 질문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전혀 모르겠

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조 후보자는 특권층 답게 두 아들에게 포르세와 벤츠를 사주고 아들들에게 7억원도 송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동산 의혹들을 보면 조 후보자가 마치 경제, 부동산 전문가 같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분할 등기가 되지 않아 반납을 했다"며 "세금을 내라는 것이 없었다. 17년 동안 땅이 있는 것은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진영 청문회 '무난'...野, 김학의 등 수사·선거 중립 요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7일 진영 행정안전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별다른 충돌 없이 정책 질의 위주 검증이 이뤄졌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진 후보자가 지역구인 용산 지역 분당권을 매입해 10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것 등을 언급하면서 "후보자가 매입한지 2년 후 견베들과 용적률이 올라가면서 가치가 올라갔다"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닐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진 후보자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상상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다"며 "시세 차익을 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상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은 "경찰이 버닝썬 배후에서 방조하거나 후원한 의혹이 있다"며 "그 흔한 전화기 압수도 없는데 현 정권 실세들도 연결돼 축소 은폐 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진 후보자는 "유착관계는 있어서도 안되고 상상할 수도 없다.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정치 보복성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진 후보자는 "재판이 진행 중이고, 여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책 질의를 이어갔다. 소병훈 의원은 도중인 전 장관 재판 중 5·18 진압 가담자에 대한 서훈이 취소된 것을 언급하면서 "서훈이 잘못된 자에 대해 취소해



야 하지 않느냐"며 "서훈이 친일 반민족행위자나 간첩 (사건 조작) 주모자에게 까지 된 바 있다"고 입장을 물었다.

진 후보자는 "명확한 증거 없이는 취소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런 부적절한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찾아서 취소하는 것이 옳다"고 답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아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아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사일로 340번안길 5

광산구 Together 광산구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